

| 활동 개요 |

대상

대학생

개발 의도

- 대학 캠퍼스는 학생들이 주로 지내는 공간이지만 고등학생 때와는 다르게 한 곳에만 머무는 것이 아닌 수업에 따라 옮겨 다니는 곳이다. 따라서 강의실에 대한 관리나 이용은 학생들이 주체가 되지 못한다.
- 대학의 캠퍼스에서는 다양하게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데 한 예로 교육 기자재 활용, 실험 및 실습, 이동 시 차량 이용, 엘리베이터의 사용 등이 있다.
-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학생들은 관리가 어려운 입장이다. 따라서 자신들의 캠퍼스의 에너지 소비 형태에 대해 알고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기회가 필요하다.
- 이는 나아가 대학생의 등록금과도 연계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전년대비 절약한 에너지만큼을 학생들에게 돌려주는 방법을 고안해 낼 수 있다.

학습 목표

-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에너지 소비량을 확인해 볼 수 있다.
- 학교에서 사용하는 장소별 에너지의 종류 및 양을 측정해 본다.
-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 줄인 에너지를 학생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내용 체계

기후변화 원인 : 온실기체의 발생원

내용	기후변화 현상					원인	영향	대응		선택	
차시						★					

차시

6차시/12차시

소요시간

2시간

장소

강의실 혹은 기후변화교육센터 내 교육실

준비물

지도자용

활동지(활동자료 1)

학습자용

대학별 에너지 소비량 비교표, 필기구

흐름도

도입
(30분)

- 우리나라 대학의 에너지 소비량 비교해 보기

↓

전개
(50분)

- 우리 캠퍼스의 에너지 소비량 확인하기
- 대표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 알아보기
- 우리 학교에서의 그린 캠퍼스 전략 확인하고 평가하기

↓

마무리
(40분)

- 등록금과 연계하여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고안하기
- 줄인 에너지 비용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고안하기



| 활동 내용 및 방법 |

1. 도입(30분)

(1) 기후변화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본다.

[유의사항] 대학생의 수준에서 상당부분을 알고 있을 것이므로 이야기해 보는 정도의 수준에서 진행을 하며 전문적인 내용까지 다룰 필요는 없다. 오랜 기간에 걸친 지구 기온의 변화 과정과 현재 인간의 활동에 의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의 모습을 대조해 보는 과정을 통해 기후 변화가 인간의 활동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

(2) 인간의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온실기체에 대해 알아본다.

[유의사항] 대학생의 수준에서 다양한 온실기체가 나올 수 있으나 대표적인 것을 이야기 하고 배출 원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본다. 일반 시민의 기본 상식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고 지나치게 공학적으로 이야기 할 필요는 없다.

[예시] 이산화탄소의 배출 원인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

(3) 캠퍼스에서 이용하는 에너지에 대해 알아본다.

[예시] 그린캠퍼스 협의회에 나온 자료를 활용하여 대학 별 에너지 소비에 대한 자료를 활용하여 이야기 해 본다. 대표 대학 2개와 해당 대학 1개를 포함하여 사용하는 에너지의 크기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교구를 활용할 수도 있다(예 : CO₂ 가방 들기).

[유의사항] 대학별 에너지 소비량이 자칫 많은 소비를 하는 학교에 대한 반감을 사는 수도 있다. 이는 여러 대학을 강의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의 규모와 인원 등을 잘 설명한다. 우리나라에서 명문대라고 알려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학교가 에너지 소비 1, 2, 3위를 한 것도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2. 전개(50분)

(1) 우리 학교의 에너지 소비량을 알아본다.

[활동상세] 학습자에게 대학에서 어떤 에너지가 사용되는지 생각해 본 뒤 이야기해 보도록 한다. 대개의 경우 난방이나 냉방을 위한 전기 혹은 가스, 석유 등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전자기기를 위한 전기, 차량 이용을 위한 석유도 필요하다. 이러한 사항을 모두 이야기해 본다. 이 에너지의 사용량에 대해 순위를 매겨본다.

[준비물] 참여 대학의 총무과에 협조를 얻어 해당 대학의 연간 에너지 사용에 대한 비용을 알아본다.

[유의사항] 사실 찾아보면 대학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양은 엄청나다. 건물들도 크고 많은 데다 전자 기기들도 많으며 실험 장비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도 많다. 그러나 이때 교육 내용이 기후변화의 원인에 대한 것이니 만큼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학습자가 부담을 가지게 되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와 불필요하게 사라지는 에너지 모두를 구별하지 않고 단순히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 한다.

(2) 우리 학교 에너지 돼지 찾아보기

[준비물] 대학 별 대표 건물에 관련된 정보(사진, 용도, 이름, 면적, 준공일, 친환경적 요소, 에너지 비용 등) [활동자료 1]

[활동상세] 각 대학에는 학교를 상징하거나 새로 지은 건물, 가장 큰 건물들이 있다. 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에너지 측면에서 학습자에게 이야기해 보도록 한다. 그 건물에 대한 기본 자료를 사전에 얻을 수 있다면 기본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 학습자에게 건물을 제시해 주고 이야기를 이끌어 나갈 수도 있다. 학습자들은 그 건물에 대해 에너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고 어떤 면이 좋고 어떤 면이 나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

[예시] A 건물은 이번에 신축된 건물인데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엄청 추워서 냉난방비가 많이 드는 건물이라고 생각한다.

B 건물은 오래된 건물이지만 벽이 두꺼워 단열이 잘되는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다. 계다가 4층 건물이라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에너지도 적게 들 것 같다.

[유의사항] 학교 건물에 대해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해당 학교 학생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을 학교 측에서는 부담스러워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한다. 새로 지은 건물의 경우 멋지게만 짓고 에너지 효율이 낮아 학생들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지속적으로 커질 것이 명확한 경우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학생들과 이야기할 수 있다. 이는 최근 계속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학의 등록금 인상과 지나친 건물 짓기, 에너지 다소비형 건물의 건축 등의 문제 의식을 갖게 할 수 있다.

(3) 우리학교 그린캠퍼스 전략에 대해 알아본다.

[유의사항] 실현 가능성이 적은 이야기나 단편적인 이야기가 아닌 지속적이고 학습자에게 직접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다. 해외나 국내의 그린캠퍼스 사례에 대해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3. 마무리(40분)

(1) 대학생들의 등록금과 연계하여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활동상세] 대학생들의 등록금에 사용하는 에너지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따라서 에너지 소비를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줄일 경우 등록금이 오르지 않아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학습자와 에너지 비용에 대해 생각해 보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2) 줄인 에너지 비용을 해당 대학 학생들에게 어떤 방식의 혜택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본다.

[유의사항] 단순히 에너지를 줄이는 것 뿐 아니라 에너지를 줄이는 것이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발생원을 줄이는 것임을 알려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해당 대학 학생들에게 어떤 혜택이 가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한국산업기술대의 경우 에너지 절약으로 아낀 전기료 2억원 가량을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주기도 하였다.

※ 참고할만한 사이트

▷ 그린캠퍼스 협의회(<http://www.kagci.org/>)



| 활동자료 |

[활동자료 1] 우리 학교 에너지 돼지 찾기

우리 학교 에너지 돼지 건물

건물이름	
건물의 규모(층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연간 드는 총에너지 비용	
냉방에 사용하는 에너지	
난방에 사용하는 에너지	
그 이외에 주요 건물 유지비	
내가 생각하는 이 건물의 에너지 관련 건물의 문제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 참고자료 |

[참고자료 1] 주요 대학 에너지 사용 실적

- (에너지 사용량) 2009년 한 해 동안 에너지를 제일 많이 사용한 대학은 서울대학교로 지난 2000년 이후 10년 연속 에너지 최다 사용 대학으로 조사됨
 - 지식경제부가 2,000 TOE 이상을 사용하는 80개 대학을 조사한 결과, 서울대의 2009년 에너지사용량은 2위를 기록한 고려대 보다 1.9배에 이르고 있음
 - 서울대·고려대에 이어 연세대·한양대·KAIST가 3~5위를, 경북대·성균관대·포항공대가 6~8위를, 이화여대·건국대가 9~10위를 기록함
 - 이들 상위 10개 대학의 지난해 에너지 사용량은 174,685TOE로 2008년 대비 2.9%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어, 에너지 낭비 요인을 철저히 차단하는 등 에너지 효율 관리에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이 필요함

62

page

< 2009년 주요 대학 에너지사용량 및 효율 >

에너지사용량 상위 10개 대학				에너지효율 상위 10개 대학			에너지효율 하위 10개 대학		
순위	대학명	에너지 사용량 (TOE)	증감률 (%)	순위	대학명	면적당 에너지 사용량 (kgoe/m ²)	순위	대학명	면적당 에너지 사용량 (kgoe/m ²)
1	서울대학교	34,259	0.5	1	육군사관학교	10.42	1	건국대학교	54.45
2	고려대학교	17,660	4.1	2	동명대학교	15.67	2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	45.31
3	연세대학교	17,377	2.2	3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16.13	3	서울대학교	40.24
4	한양대학교	15,686	4.3	4	경남대학교	16.50	4	광주과학기술원	40.02
5	KAIST	15,676	3.8	5	홍익대학교	17.46	5	KAIST	39.90
6	경북대학교	14,599	4.2	6	선문대학교	17.52	6	중앙대학교	38.36
7	성균관대학교	13,644	16.4	7	한밭대학교	17.57	7	경원대학교	37.61
8	포항공과대학교	13,029	△41.3	8	군산대학교	17.80	8	동국대학교	37.06
9	이화여자대학교	12,580	1.7	9	공주대학교	17.82	9	한양대학교	34.73
10	건국대학교	11,510	1.3	10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	18.17	10	연세대학교	33.81

* 포항공대의 에너지사용량이 전년대비 41.3% 감소한 것은 '09년부터 포항가속기연구소가 별도법인으로 독립되어 에너지사용량을 따로 보고하기 때문이며, 동 연구소를 포함하면 포항공대의 에너지사용량은 21,694 TOE임

- (에너지 효율) 2009년 에너지 효율(면적당 에너지 사용량)이 가장 나쁜 대학은 건국대, 성균관대 수원캠퍼스, 서울대인 것으로 조사됨
 - 이들 3개 대학의 에너지 효율은 평균 47.88kgoe/m²로 80개 대학 평균 에너지 효율 (26.65kgoe/m²)의 1.8배에 해당됨



- 참고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상위 10개 대학의 평균 에너지 효율은 15.74kgoe/m²이며, 효율이 낮은 하위 10개 대학의 평균 에너지 효율은 39.48kgoe/m²로 나타났음
 - 이들 대학의 에너지 낭비가 심한 주된 이유는
 - 빈 강의실에도 25° 이상을 유지하고 소등을 소홀히 하는 등 에너지 절약 실천 의지가 약하고,
 - 노후 건물이 많아 창문 및 단열부분이 취약하여 에너지 손실이 많고,
 - 냉난방이 중앙집중식으로 운영되지 않는 고건물이 많아 개별 냉난방기기로 냉난방을 하는 등 에너지 과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 한편 에너지효율이 좋은 대학은 육군사관학교(10.42kgoe/m²), 동명대(15.67kgoe/m²), 단국대 천안캠퍼스(16.13kgoe/m²)로 이들의 에너지효율은 건국대, 성균관대, 서울대의 2.7~5.2배 수준인 것으로 조사됨
- (향후 대책) 정부는 에너지 다소비 대학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신축되는 국공립대학 건물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에너지 효율 1등급 취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기존 대학 건물에 대해서는 에너지 진단 후 ESCO사업*을 추진토록 독려해 나갈 계획임
- * 금년중 서울대, 한밭대 등에서 ESCO(Energy Service COmpany)사업을 추진할 예정
 - 더불어,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에너지낭비요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대학의 자발적인 에너지절약 분위기 확산을 위해 ‘그린캠퍼스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임
 - * 냉난방 권장온도 준수, 승강기이용 자제, 가로등 LED교체, 자전거 타기운동 등

출처 : 지식경제부, http://www.leadernews.co.kr/korec_home/notice/article_view.asp?seq=501

[참고자료 2] 보도자료

여주대, 친환경 캠퍼스 프로젝트 운영(매일경제, 2010.5.19.)

여주대는 친환경적인 대학 운영을 위해 ‘에코 캠퍼스(Eco Campus)’ 프로젝트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개교 17주년을 맞아 녹색환경 실천이라는 국가적 비전에 동참하기 위해 이 프로젝트를 마련한 여주대는 매달 셋째 주 수요일 학교에서 ‘Garage Sale(중고 물품 세일)’ 행사를 열기로 했다.

교직원과 학생이 참여하는 이 행사에서 얻은 수익금의 30%는 친환경적인 캠퍼스 운영 기금으로 적립한다.

여주대는 이와 함께 교직원과 학생이 참여하는 학생봉사단을 구성해 지역 사회의 소외된 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정태경 여주대 이사장은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세계 지도자가 되려면 인성과 환경 문제에 대한 자각은 필수적인 자질이다.”라며 “에코 캠퍼스와 사회봉사단을 통해 우리 학생이 진정한 지성인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여주=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참고자료 3] 관련 기사들

녹색캠퍼스 에너지 감사단 출범

상명대 등 10개 학교 11개 대학생 클럽 구성

녹색소비자연대(상임대표 이덕승)에서는 올해 12개 대학에서 녹색캠퍼스 에너지 감사단을 구성하여 활동을 펼친다.

2006년 국내 190여개 에너지 다소비 기관에 대한 자료(에너지관리공단 2007)에 따르면, 1위 인천국제공항공사를 포함한 공공건물 6곳, 2위 현대기아자동차 남양기술연구소를 포함한 연구소 14곳, 3위 롯데호텔을 포함한 호텔 20곳, 4위 코엑스를 포함한 상용건물 23곳, 5위 서울대학교를 포함한 대학이 22곳, 6위 연세의료를원을 포함한 병원 19곳 등이 차지하고 있다.

2006년 국내 에너지 다소비 기관 190곳의 총 전력 소비량 5,807,431MWh 중 대학이 소비하는 전력량은 769,799MWh로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학이 운영하는 병원(15곳)까지 포함하면 1,156,081MWh, 19%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2개의 대학 중 가장 많은 전기를 사용한 서울대학교(전체 순위 5위)의 경우 1년 동안 사용한 전력으로 49,416톤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켰으며, 이는 30년생 잣나무 4,782그루가 흡수해야하는 양이다.

이에 본회에서는 올해 상명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동국대, 한동대, 제주대, 건국대, 단국대, 인하대, 삼육대 등 10개 대학 11개 대학생 초록천사 클럽을 구성하였으며 연말까지 공통과제 및 개별과제를 중심으로 대학내에서의 다양한 녹색생활실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클럽의 멘토 역할을 담당할 교수와 참여대학과 함께 협약식을 개최하여, 클럽리더 훈련을 위한 워크숍 등을 통해 대학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추진하는 녹색캠퍼스 운동을 펼쳐나가고자 한다.

2010년 녹색캠퍼스 운동 주요 실천과제

- ◆ 공통과제 : 에너지 감사단 활동
 - ◇ 캠퍼스 에너지 사용 실태 현황조사
 - ◇ 캠퍼스 에너지 사용 모니터링
 - * 개인/교실/단과대학/실험실/생활관 에너지 사용실태 조사
 - ◇ 에너지 절약 실천 활동 및 캠페인
 - ◇ 탄소포인트제 가입 및 관리자 되기
 - ◇ 캠퍼스 에너지 절약 캠페인
- ◆ 개별과제 : 동아리별로 자체 활동 계획수립
 - ◇ 폐기물 줄이기 : 자기 컵 이용하기 (일회용 컵 사용 줄이기) / 레포트 표지 없애기
레포트 제출시 양면 이용 / 이면지 사용 활성화
중,고등학교와 연계한 교복 물려주기 / 손수건 이용하기 캠페인
 - ◇ 쓰레기 자원화 : 전자쓰레기 제로운동 / 못입는 파티 / 단체티 모아 재사용하기
헌옷 기부하기 / 헌옷 리폼하기 / 음식물 쓰레기 모아 퇴비 만들기
폐현수막 수거(쓰레기 분리수거함 만들기)
 - ◇ 캠퍼스 녹색화 : 텃밭이나 화분에 채소 가꾸기 / 수경재배 화분 가꾸기
짜투리 땅 녹화하기 / 캠퍼스 옥상 녹화하기
 - ◇ 교육 : 초, 중, 고등학생 클럽 구성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 초록천사 멘토 활동
에코체험 학습 대학생 멘토로 참여
지역아동센터에서 초록천사 멘토 활동
녹색생활실천에 관한 교육자료 제작 (동영상/PPT)
 - ◇ 실천하는 녹색소비자 DIY 활동 : 천연비누와 천연 화장
- 문의 전화 02-3273-9446 팩스 02-3273-1544 조윤희 간사



에코캠퍼스 힘쓰는 대학생모임 ‘뿌리와 새싹’

“에코캠퍼스,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에코캠퍼스 힘쓰는 대학생모임 ‘뿌리와 새싹’

우리들로 인해 오염되어진 지구에 살면서도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은 부족한게 현실이다. 이런 와중에 환경, 이웃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대학생들이 있다.

환경, 이웃, 동물을 생각하는 환경모임 ‘뿌리와 새싹’은 1991년 탄자니아에서 시작돼 전세계 90여개국으로 퍼진 세계적인 모임이다. 우리나라의 대학모임은 2007년 11월 제인구달 여사의 방한을 계기로 시작됐다. 에코캠퍼스를 위해 힘쓰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 ‘뿌리와 새싹’ 모임을 소개해달라.

▲ ‘뿌리와 새싹’은 환경, 이웃, 동물을 생각하는 자발적인 환경 모임이다. 한국에서는 1인 뿌리와 새싹들이 퍼져 나가다가 ‘뿌리와 새싹 책방(아름다운 책방 신촌점)’에서 대학모임이라는 이름으로 대학생 모임이 생겼다. ‘뿌리와 새싹’을 지원해주는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의 에코과학부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동덕여대, 서울여대 등 다양한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 ‘뿌리와 새싹’에서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가?

▲ 캠퍼스 내의 환경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장기 프로젝트로 캠퍼스 내 텃밭 가꾸기와 어린이 환경교육, 이면지 노트 사용하기 등을 진행하고 있고 ‘UN 세계 평화의 날’ 평화의 엽서 쓰기, ‘대동제(이화여대 축제)’의 일회용 접시 대신 뽕튀기 접시 사용하기 등 단기적인 활동도 하고 있다.

지난 해 여름에는 일본 와세다대 환경동아리 로도리게스와 한일환경 & 문화교류MT도 진행했다. 모임 구성원들과 ‘탐사르 총회’, ‘서울환경영화제’, ‘에코소풍’, ‘그린드링스’ 등에 참여하며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친목을 다진다.

– 에코캠퍼스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가?

▲ 에너지관리공단 2007년 자료에 의하면 국내 에너지 다소비 건물 1위부터 190위까지 ‘학교’로 분류된 기관은 23군데였으며 이들 ‘순위권’ 대학들 사용량으로는 전체 기관·단체 사용총량(174만6,203TOE) 중 13.8%(24만1,859TOE)를 차지했다.

대학이 지역 환경 탄소배출량에 ‘기여’하는 정도를 보면 더 이상 단순한 학문적 책임만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라 지역 사회 내에서 앞장서 환경 문제를 개선해야 하는 존재로도 볼 수 있다. 에코 캠퍼스 운동이란 이러한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대학 내에서 자발적으로 탄소배출량(탄소배출량은 석유에너지 사용뿐 아니라 모든 소비활동 의미)을 줄이자는 운동이다.

- 에코캠퍼스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가?

▲ 학생들의 인식 변화는 학교 측의 시스템 개선과 함께 병행되어야 하는데 때로는 학교 측의 시스템 개선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책임이 학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있음을 스스로 인식해야 한다.

에코 캠퍼스를 실천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예를 들어 학식에서 고기반찬 먹지 않기(채식 메뉴 선택), 음식물 남기지 않기, 개인용 물 컵과 젓가락과 손수건 가지고 다니기, 이면지 활용하기, 낮은 층은 계단 이용하기, 빈 강의실에서 공부하지 않기, 전등 끄기 등 일상에서 소소하게 실천하는 게 바로 에코 캠퍼스 운동이다.

- 앞으로 ‘뿌리와 새싹’은 어떤 활동을 할 예정인가?

▲ 텃밭을 쉽게 접하기 어려운 도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환경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싶다. 쉽지 않겠지만 일회용 젓가락 대신 개인용 젓가락 사용하기 캠페인, 학생식당 채식 메뉴 만들기 등을 해보고 싶다.

-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무더운 여름이다. 개인 텀블러나 물병을 사용하면 매일 음료수비로 지출되는 용돈도 아낄 수 있고 지구의 온도도 시원하게 낮출 수 있다. 가방 속 500g 짜리 물병의 무게가 내가 아낄 수 있는 탄소의 무게라고 생각한다면 번거로움 쯤 견딜만하지 않을까.

출처 : 그린캠퍼스 협의회, <http://www.kagci.org/>



[참고자료 4] 그린캠퍼스 캠페인

◎ 함께 가꾸는 그린캠퍼스

1. 냉·난방중에 강의실 문 닫고! 새는 전기는 막고!

- ▶ 에어컨으로 실내온도 1℃를 낮추는 데 약 7%의 전력이 더 소모됩니다.
- ▶ 강의실 문을 닫을 경우 전력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공부도 함께 하고 에너지도 함께 쓰고!

- ▶ 강의실 하나당 한 시간에 약 500Wh의 전력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형광등 20개 기준)
- ▶ 강의실에서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도서관을 이용합니다.
- ▶ 시험 때는 특정 강의실을 지정하여 공부방으로 운영합니다.

3. 빈 강의실·동아리실·연구실은 에너지도 휴식!

- ▶ 비어 있는 방의 냉·난방기와 전등은 꼭 끕니다.
- ▶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를 뽑으면 10%의 전력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교내식당에선 맛있게! 적당하게! 남지 않게!

- ▶ 연간 우리나라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돈으로 환산하면 15조원이 넘습니다.
- ▶ 1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78,000원의 처리비용이 소요됩니다.

5. 개인 컵 사용으로 깨끗하게! 건강하게!

- ▶ 하루에 종이컵을 5개 사용한다면 연간 20kg의 CO₂가 배출됩니다.

6. 컴퓨터 출력은 필요할 때만! 이면지는 다시 한번 사용!

- ▶ 이면지는 버리지 말고 연습장이나, 보고서 용지로 재사용합니다.
- ▶ 보고서는 양면 인쇄하여 제출합니다.

7. B,M,W 실천으로 나의 건강! 지구의 건강!

- ▶ 승용차 이용을 일주일에 하루만 줄여도 연간 445kg의 CO₂를 줄일 수 있습니다.
- ▶ 교내 오토바이 운행은 소음 등으로 다른 학생들에게 방해가 됩니다.
- ▶ 자전거·버스(B), 지하철(M), 걷기(W)로 그린캠퍼스를 만듭니다.

8. 포스터 현수막은 줄이고! 홈페이지·이메일 홍보는 늘리고!

- ▶ 학교 축제는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는 친환경적 행사로 치룹니다.
- ▶ 공지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이메일을 활용해 알립니다.